

1인 1월 1만원

만인공덕 인재불사

동국사랑

1·1·1

캠페인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여  
한국불교의 중흥과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동국사랑 1·1·1 캠페인 동참 방법

**1** 휴대폰 사진 전송



본 포스터를 사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 (1800-3283)  
\*휴대폰으로 담당직원이 전화 연락드리겠습니다.

**2** 스마트폰 약정



스마트폰으로 상단 QR코드를 스캔 후,  
모바일 약정서 작성

- 스캔 방법
- ①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다음앱 접속
  - ② 검색창 오른쪽 마이크 아이콘 클릭
  - ③ 코드 메뉴 클릭 및 QR코드 스캔

**3** 후원 문의



전화 : 02-2260-3300  
홈페이지 : [ilove.dongguk.edu](http://ilove.dongguk.edu)  
팩스 : 02-2260-3796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참여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 정각도량 159

불기 2568(2024)년 / 정각도량 제159호 / 비매품 포교지 / 발행처 : 동국대학교  
서울·와이즈 캠퍼스 정각원 / <http://jeonggak.dongguk.edu>



특집 | 미래 세대를 위한 불교 교육의 방향

**dongguk**  
UNIVERSITY 

# 서방정토극락세계, '無爲寺 極樂寶殿'

## 부분도상



극락보전 내부 아미타삼존불좌상과 아미타삼존도 후불벽화 (©문화재청)



배면벽화 백의관음도 (©문화재청)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 곳에 주재하고 계시는 부처를 일러 아미타부처라 하며, 그 곳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을 누리는 ‘서방정토극락세계西方淨土極樂世界’이다.” - 『阿彌陀經』 -

이러한 극락을 현실세계에 구현한 고찰古刹이 있으니 바로, 전남 강진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무위사無爲寺’이다. 무위사는 신라 617년(진평왕 39)에 원효대사가 ‘관음사觀音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사찰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중창을 진행하였고 사명도 ‘무위사’로 바뀌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극락보전極樂寶殿은 무위사 경내의 전각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해체 보수과정 중에 목서명이 발견되어 1430년(세종 12년)에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극락보전은 높은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 크기로 세웠는데 지붕은 옆에서 볼 때 마치 책을 엮어놓은 것과 같은 형태인 맞배지붕에 배흘림기둥으로 조성하고 기둥 위에만 공포拱包(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구성된 부재)가 있는 주심포계柱心包系형식으로 부재를 결구시켰다. 천장은 위쪽 부재를 드러낸 연등천장이며 불상 윗부분에만 보개寶蓋와 우물반자를 조성하였고 파련波蓮무늬를 새긴 운공雲工(구름 모양의 목재)등을 매우 장식적으로 표현하였다.

고승희 / WISE캠퍼스 디자인미술학과 교수



**■ 건학이념**  
본교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총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 교육 목적**  
본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ilove.dongguk.ac.kr

소액기금모금 캠페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소액기금모금 캠페인

- 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로명 주소 : 동대로 123
- 2 교육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동대로 123
- 3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대로 123 매월 1만원, 2만원, 3만원 참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처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100주년기념관 3층 대외협력실  
전화 054) 770-2200/2500 팩스 054) 770-2003 http://ilove.dongguk.ac.kr

**기부 어렵지 않아요! 쉬운 기부! 즐거운 기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스마트폰(QR코드) 약정

02

휴대폰 사진전송

03

홈페이지·종이·전화약정

핸드폰 QR코드검색 후 참여신청서 작성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 010-6516-1027

발전기금 홈페이지 또는 팩스·우편·전화로 참여

**후원금은 여기에 사용됩니다.**

후원금 전액은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

인재육성 장학기금

특정목적기금

# 정각도량 159호

불기 2568(2024)년 봄호



## 표지 사진

무위사 극락보전(無爲寺 極樂寶殿)  
국보(제13호), 1430년(세종 12년),  
전남 강진 (©문화재청)

## 정각도량 통권 159호

- 발행일 : 2024년 3월 2일
- 발행처 : 동국대학교  
서울 · 와이즈 캠퍼스
- 서울정각원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 (02)2260-3015-8  
Fax : (02)2260-3744
- 경주정각원  
38066 경주시 동대로 123  
Tel : (054)770-2915  
Fax : (054)770-2009
- 발행인 : 윤재웅
- 편집인 : 유주성(제정스님)  
이창안(철우스님)
- 편집위원 : 유주성, 이창안  
정승석, 안양규
- 편집주간 : 정승석
- 편집간사 : 이민기
- 편집사무 : 이미영
- 디자인 / 인쇄 : 중도기획 (02)2278-2240

## 정각도량

2 불교의 효도 / 철우스님

## 특집 | 미래 세대를 위한 불교 교육의 방향

- 5 대학생 불교교육의 현황 및 미래의 방향 / 문현공
- 9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불교 융합교육 / 권진영
- 13 어린이 · 청소년 불교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 / 김윤경

## 불교예술의 세계

17 하동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 고승희

## 사찰음식 테라피

20 아버지에게 바치고픈 치유의 밥상, “절밥 무모 땀이 나올텐데” / 남혜경

## 초기 경전의 법문

22 기울어진 나무의 운명처럼 / 명오스님

## 불교와 사회복지

24 나눔의 실천과 더불어 사는 삶 / 동원스님

## 불심의 창

26 인도忍土에서 금강 도반들과 더불어 / 배광식

## 열린 마당

28 모정불심母情佛心: 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불심 / 장희수

## 내 마음의 금언

30 안심하게 행복해지는 실천행 『金剛經』 ‘無住相布施’ / 동진스님



## 불교의 효도

철우 스님 | WISE캠퍼스 정각원장

최근에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가구 수는 증가한다고 한다. 현재 1인 가구가 이미 40%에 달하고 있으며, 갈수록 증가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끔 홀로된 노인이 고독사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는 전통적 가치인 효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에서는 유교儒敎의 영향으로 나라에 대한 충과 함께 부모에 대한 효를 상당히 중시해 왔다. 특히 유교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하늘[天]에 두어 인간은 마땅히 하늘을 따라야 한다는 천명天命을 도출하고, 국가의 하늘은 임금이니, 그를 따르는 것이 '충'이며, 가정의 하늘은 아버지[父]이니 그를 받들어야 한다는 '효'를 제창하고 있다. 그 가운데 『효경孝經』에서는 “사람의 몸과 머리털, 피부 등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감히 훼손하지 않음이 효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날림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sup>1)</sup>라고 '효'를 규정하고 있다.

유가에서 제창한 이와 같은 '효'의 입장에서는 머리를 깎고 부모와 친지를 떠나며, 세간의 영리를 멀리하여 출가出家는 중국인들에게 상당히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도 당연히 '효'를 중시하고 있다. 다만 유학과 그 효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본래 불교에서는 인과법因果法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해명하고 있는데, 유교와는 달리 나라에 대한 충과 부모의 효를 시은施恩에 대한 보은報恩으로 설정하고 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마땅히 충성을 다해야 하고, 부모가 나를 낳아서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효도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유교에서 막연한 '천명'으로 설정한 충효와는 차별이 있다.

그러나 유교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시대에 중국에 전래하였을 때는 중국인들이 불교에서 머리를 깎고 부모와 친지를 떠나 출가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에서 끊임없이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불교도들은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같은 경전을 만들기도 하고, 불교에서 부모와 가족을 떠나 출가하여 공부하는 것이 '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1) 『孝經』 “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孝之終也。”

『부모은중경』에서는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으로부터 젖을 먹이고 기르며 끝까지 사랑해 주는 10가지의 지중한 은혜를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중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물론 직접 만들어 모시며 봉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지금의 생사(生死)가 시작도 없는 이래로부터 끊임없는 윤회(輪廻)의 연속이며, 그렇게 윤회 전생(轉生)하는 존재는 무한한 괴로움의 연속임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참다운 효는 오히려 불법을 체득하여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라 제창한다. 이러한 사례는 불교가 처음 전래한 동한(東漢) 시기에 찬술된 『모자이혹론(牟子理惑論)』에서 “(만약 수행하여) 성불(成佛)한다면, 부모와 형제를 모두 제도할 수 있으니, 이것이 효(孝)가 안 되고, 이것이 인(仁)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인과 효가 되겠는가!”<sup>2)</sup>라고 논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유교에서 논하는 것보다 더욱 커다란 효, 즉 대효(大孝)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불교의 대효를 밝히는 가장 대표적인 이가 송대(宋代) 활동하던 설승(契嵩) 선사이다. 설승 선사는 불교와 유교의 도리를 잘 융합하여 황제로부터 ‘명교대사(明教大師)’의 호칭을 하사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설승 선사는 그의 문집인 『심진문집(鍾津文集)』에 「효론(孝論)」을 13편에 걸쳐서 논하고 있다. 그는 그 첫머리에 “무릇 효는 모든 성현의 존중하는 바이며, 불교에서는 더욱 중시한다.”<sup>3)</sup>라고 하여 불교에서 특히 효를 유교보다도 더욱 중시함을 밝히고, 이를 이어서 “우리들의 성인(聖人: 佛)께서 대효(大孝)의 오묘



용주사 지장전 여래정려 벽화 부모은중경

2) 『牟子理惑論』, “至于成佛, 父母兄弟皆得度世, 是不爲孝, 是不爲仁, 孰爲仁孝哉!”  
 3) 『鍾津文集』卷4, 「孝論」 “夫孝, 諸教皆尊之, 而佛教殊尊也.”

한 이치와 은밀한 의미를 밝힘은 유학자들의 학설과 일치하고 있다.”<sup>4)</sup>라고 논하고 있다. 나아가 “무릇 효는 대계大戒보다 앞선 것이요, 계율은 모든 선함이 발생하는 바이다.”<sup>5)</sup>라고 하여 불교에서 중시하는 계율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으로 설하고 있다.

설승 선사는 “대저 도는 신묘한 용용의 근본이고, 스승은 가르침의 근본이며, 부모는 형형을 낳는 근본이다. 이러한 세 가지 근본은 천하의 커다란 근본이다.”<sup>6)</sup>라고 하여 효가 중요한 까닭이 바로 부모가 우리의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근본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그 때문에 “무릇 효는 하늘의 길이며, 땅의 정의이며, 백성이 행할 바다. 지극하고 큼이여, 효도의 길이여!”<sup>7)</sup>라고 찬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설승 선사의 사상은 유교에서 ‘천명’의 입장에서 충과 효를 논하는 것과는 좀 더 깊은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설승 선사는 “오계五戒는 첫째, 불살생不殺生이고, 둘째, 불투도不偷盜이고, 셋째, 불사음不邪淫이고, 넷째, 불망어不妄語이고, 다섯째, 불음주不飲酒이다. 대저 불살생은 인仁이요, 불투도는 의義요, 불사음은 예禮요, 불음주는 지智며, 불망언은 신信이니, 이 다섯 가지 수행은 곧 그 사람을 이루며, 그 아버이를 드러내니, 또한 효도가 아니겠는가?”<sup>8)</sup>라고 하여 유교에서 중시하는 ‘오상五常’과 불교의 ‘오계五戒’를 연결하여 논하고 있다. 이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교와 출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불교를 융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렇게 불교의 효도를 논한 까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화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다시금 부모에 대한 효도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참다운 효도가 무엇이고, 과연 그 실현은 무엇일까? 역대로 수많은 고승이 참담게 출가하여 불도佛道를 이룸이 진정한 효의 완성임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꼭 출가하라는 말은 아니다. 특히 설승 선사가 다시 편집한 조사선의 종전인 『법보단경法寶壇經』에서는 “불법은 세간世間에 있으며, 세간을 벗어나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sup>9)</sup>라고 강조한 의미를 떠올린다면, 세간에서 여러 삶을 영위하면서도 불법을 공부하여 참다운 효도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각도량**

4) 앞의 책, “發明吾聖人大孝之奧理密意, 會夫儒者之說.”

5) 앞의 책, “夫孝也者, 大戒之所先也; 戒也者, 衆善之所生也.”

6) 앞의 책, “夫道也者神用之本也, 師也者教誥之本也, 父母也者形生之本也. 是三本者天下之大本也.”

7) 앞의 책, “夫孝,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 至哉大矣, 孝之爲道也.”

8) 앞의 책, 「戒孝章」第7(大正藏52, 661b) “五戒, 始一日不殺, 次二日不盜, 次三日不邪淫, 次四日不妄語, 次五日不飲酒. 夫不殺, 仁也, 不盜, 義也, 不邪淫, 禮也, 不飲酒, 智也, 不妄語, 信也. 是五者修, 則成其人, 顯其親, 不亦孝乎?”

9) 『法寶壇經』, “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覓菩提, 恰如求兔角. 正見名出世, 邪見是世間, 邪正盡打却, 菩提性宛然.”

## 대학생 불교교육의 현황 및 미래의 방향

문현공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조교수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20세-29세)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서 20대 전체 사망원인 중 54.5%를 차지한다. 특히, 20대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만 명 당 16.4명을 유지하다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증가추세이며, 2020년에는 21.7명까지 증가했다. 20대의 자살 동기로는 1위가 정신과적 문제, 2위가 경제생활 문제, 3위가 남녀 문제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1위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울증’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는 자살과 우울증이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말한다. 더불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상황, 세계 각국의 전쟁 인한 경제불황 등도 청년들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자살률은 1위이며, 삶의 만족도는 41개국 중 35위라는 지표에서 볼 때 자살률은 행복감과 반비례한다. 20대의 높은 자살률은 경제불황, 취업난, 주거 문제 등 한국의 청년들의 괴로운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히 만족시켜줄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행복감을 높여 줄 방법은 오로지 경제적인 방법밖에 없을까? 국내 청년이 처한 암울한 상황은 불교계의 중대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특히,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의 교두보인 대학교육의 중대한 역할을 시사한다.

국내 불교계 종립대학에 대학생 불교교육의 현황을 보면, 먼저 불교계 종립대학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교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동국대학교, 금강대학교, 위덕대학교 3곳이다. 천태종에서 설립한 금강대의 경우 교양필수 과목 중 불교교육과 관련된 과목으로는 ‘불교의 이해’와 ‘생활속의 수행’ 2가지가 있다. 불교의 이해는 2학점 과목으로 초기불교 및 대승, 천태사상을 중심으로 불교의 이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생활속의 수행은 1학점, P/N(pass or non-pass)로 되어있으며 제목에서 보여지듯 수행 중심의 강의이다.

동국대의 경우 교양필수 과목으로 ‘불교와 인간’과 ‘자아와 명상’이 있다. 불교와 인간 역시 2학점의 이론 중심과목으로서 한국, 인도, 중국, 티벳 불교 등 세계불교를 포함해 초기불교 및 보살사상, 바라밀 같은 대승불교 철학을 다루면서 불교학 전반을 아우른다. 자아와 명상은 1학점, P/F(pass or fail)과목으로 간화선, 호흡명상 같은 전통적 수행과 더불어 몸 관찰 명상, 자비명상, 행복명상, 음악 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하고 실습하는 강의로 구성되어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호흡명상’과 ‘몸관찰명상’ 등으로 이는 현대 사회에서 여러 심신질환에 뛰어난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

스 감소(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의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바디스캔(body scan)’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MBSR의 일부 방법들이 소개된다는 점은 청년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덕대의 교양 필수 과목으로는 이론 중심의 ‘불교와 사회’, 실습 중심의 ‘마음공부’ 2가지가 있다. 불교와 사회 역시 타 대학과 동일하게 2학점 이론 중심 수업으로 강의에서는 붓다 당시 인도의 상황, 사성제, 팔정도, 무상과 무아, 12연기, 육바라밀 등 주로 초기불교를 다룬다. 마음공부 또한 1학점 과목으로 실습 중심 수업이다. 다만 위덕대의 불교와 사회 강의 초반부에서는 ‘마음챙김과 위빠사나 명상’, ‘마음챙김 명상의 이익’, ‘3분 호흡 공간 명상’, ‘자애명상’을 다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현 사회에서 심신질환에 마음챙김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할 불교교육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적절한 지점으로 보여진다.

금강대, 동국대, 위덕대의 교양필수 과목들은 이론 위주 강의와 실습 위주 강의 2가지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특히, ‘불교와 인간’, ‘불교와 사회’ 등 이론 중심 수업에 2학점이 부여된다는 점은 사실상 학생들이 불교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과목들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습 중심의 수업이 대부분 1학점 즉, P/F 과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점 이수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수업참여 혹은 집중력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마음챙김 명상의 효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3개의 불교계 대학 수업 커리큘럼에는 호흡명상, 몸관찰 명상 등 일부분만이 반영되어 있을 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시기는 심리적 자아의 정립 및 자아정체성 형성을 통해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자립적 삶을 위한 지식의 습득, 바른 인생관 정립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성인으로 도약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대인관계, 학업, 졸업 후 취업 문제 등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정각원 재학생 수요법회 모습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은 현실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단면이며, 자살동기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문제, 경제적 문제, 낮은 삶의 질이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대학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취업으로 청년층의 취업난은 치열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새로운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대학생 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우울, 인터넷 중독, 자살, 약물중독 등 심각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심각한 점은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 및 불안, 사회부적응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며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의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취업스트레스 뿐 아니라 대학생이 겪는 스트레스는 다양하며 여러 연구들에서는 이를 '생활스트레스'라고 표현한다. 이는 대인관계를 비롯한 학업문제, 등록금, 용돈 등의 경제문제, 진로 및 취업 등 장래문제를 포함한다.

스트레스(stress)의 어원은 라틴어 'strictus', 'stringere' 2가지로 그 의미는 '조이다(tight)', '압박하다(compressed)', '팽팽히 당기다(draw tight)' 등이다. 스트레스는 경직성을 동반하는데, '경직(硬直)'은 굳어서 뻣뻣하게 된 상태이다. 이에 반해 명상은 '이완(弛緩, relaxation)' 즉, '느슨하게 풀어지는' 성질을 함유한다. 스트레스가 특정 생각이나 대상에 대해 경직된 마음상태라면 명상은 압박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고 느슨하게 풀어내는 작용성이 있는 것이다. 명상의 이완 반응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압과 맥박수를 낮추고, 호흡의 수를 느리게 하고 신체의 산소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명상이 우울과 스트레스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에는 대학생의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의 긍정적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MBSR과 이완 명상을 활용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생활스트레스 대처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디스캔 명상, 호흡 마음챙김 및 좌식명상 등의 MBSR을 시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스트레스 대처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삶의 질 수치도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우울은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정서라 언급했는데 대학생의 우울과 마음챙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있다. 연구에서는 마음 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를 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우울 정서가 감소하였으며, 추적조사 결과 프로그램 종료 1달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마음챙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직업 지도 프로그램과 정좌명상, 바디스캔이 포함된 마음챙김 명상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의 우울, 불안과 관련된 정신건강 지수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취업스트레스 지수는 감소했다.

살펴보았듯이 마음챙김 명상 기반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불교계 종립대학 교양과목 중 학점이 부여되는 교양필수 과목에는 마음챙김 관련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자아와 명상 같은 실습 위주 과목에서는 명상

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MBSR, MBCT 같은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불교계 종립학교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방법은 교양필수 과목을 통해서일 것이다. 특히, ‘불교와 인간’, ‘불교와 사회’ 등 이론 위주 수업은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으로 사실상 학생들이 불교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과목들이다. 그러나 이 과목들은 이론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자아와 명상’, ‘마음공부’ 등 실습 중심의 강의도 있으나 이들은 P/F 과목으로 상대적으로 학점 이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소극적 수업참여 혹은 집중력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실습 위주 강의에는 많은 연구들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MBSR, MBCT 같은 프로그램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교계 종립대학의 교양과목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주로 마음챙김을 강조했지만 물론 마음챙김 뿐 아니라 ‘간화선 프로그램과 청소년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 ‘간화선 수행과 중·고령자의 우울과 불안 심리에 미치는 효과’, ‘간화선 수행을 통한 신체적·정서적 변화 및 대인관계 향상’, ‘선 수행 기반 교양강좌가 대학생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불교수행을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탐구한 연구들도 있다.

대학생 불교교육의 미래방향을 탐색하는데 불교의 다른 수행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글에서 마음챙김이 주로 강조된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학계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실험적 연구방법을 통해 많은 효과들이 증명되었고 현재까지 축적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다. 간화선, 자비명상, 염불 등 우수한 불교의 다른 수행 방법들 역시 청년들에게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처럼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에 기반한 효과의 증명과 데이터의 축적이 중요하다.

종교인구의 감소에도 명상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청년층을 위한 마음챙김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종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역할에 시급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론 위주 수업에서는 명상의 방법과 긍정적 효과 등을 다룬 내용들을 대폭 보강하고, 실습 위주 과목에서는 마음챙김 명상 기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시한다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여러 스님들과 명상 지도자, 학자, 교강사 등 많은 전문인력과 더불어 불교 관련 교양 과목 등 충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종립대학의 불교교육은 언급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대학의 명상관련 교양교육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불교신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보편적 종교교육의 토대 위에서, 불교계 종립대학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불교수행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보급과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장각도향**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불교 융합교육

권진영 | 철학박사,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영석고 교법사

불교는 변화에 대한 능동적 해석체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변화의 세심한 관찰의 결과인 연기법이라는 종교철학적인 토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다양한 원인들이 뒤섞여 발생된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다. 바로 불교 융합교육이 그것이다. 사실 불교 융합교육의 필요성은 몇 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의 배경이 되어 대두가 되어왔다. 그 중의 하나의 배경은 현대의 탈종교화 시대 상황을 꼽을 수 있다.

현대인들은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 같은 신세대층을 중심으로 특정 종교를 믿거나 앞으로 믿을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5년 종교 인구조사에 의하면 불교 인구는 10년 전보다 7.3%가 감소했으며 연령층이 노령층에 편중되어 있는 등 미래 불교 인구의 감소율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이는 종교에서 삶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거나 심리적 위안이나 치유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탈종교 시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탈종교화 시대의 원인 가운데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은 푸코(Michel Paul Foucault), 데리다(J. Derida),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로티(R. Rorty), 라캉(Jacques Lacan), 들뢰즈(Gilles Deleuze) 등의 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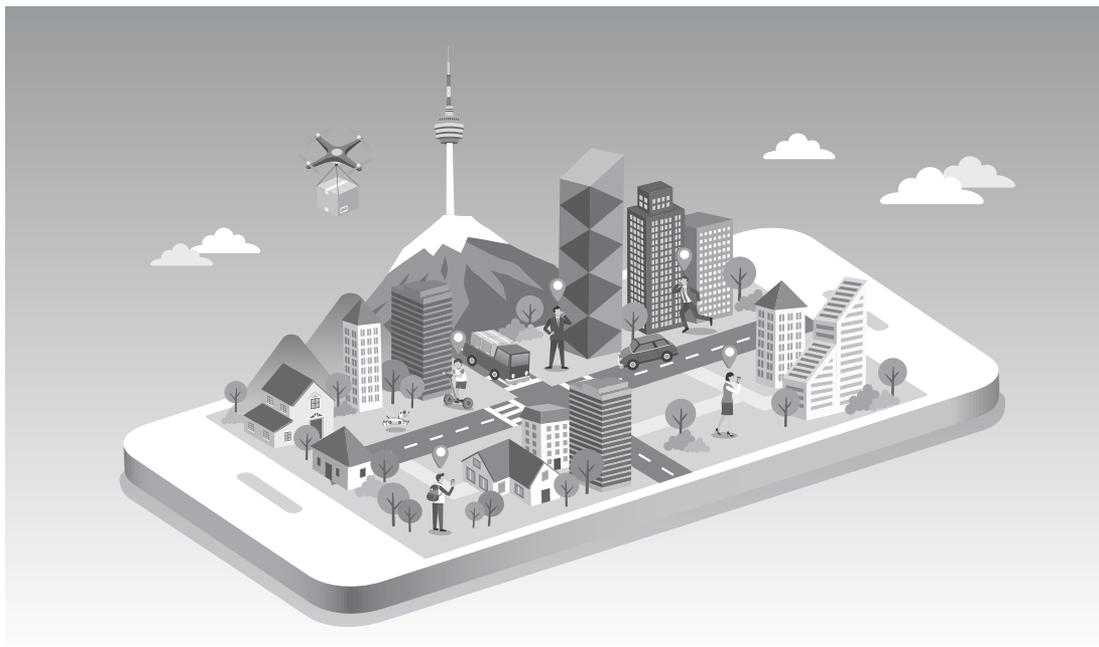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더니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철학사조로서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종교개혁,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대전 등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종교, 철학, 예술, 과학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주의적인 새로운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20세기 서구 문화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근대 계몽적 이성의 절대적 권위는 과학기술문명의 새로운 틀로 모든 것의 원리나 구조를 밝혀보고자 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획일성이나 동일성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성향은 보편적 진리나 절대적 법칙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신념은 인간과 자연을 객관화하고 도구화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인간소외, 생태계 파괴 등의 전 지구적

위기라는 또 다른 삶의 문제들이 대두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모더니즘의 이성주의, 권위주의, 획일성, 절대주의, 인간중심주의 등을 비판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지식구성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실재(constructed reality)'로서 상대적이며 잠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인간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적, 시대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주장한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기존의 지식체계는 근본부터 과감히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식과 결합한 권력의 틀을 깨고 거대 담론에 대해 비판하게 되었고 종교는 거대 담론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종교화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불교는 시대적 요구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알맞게 불교 교육의 틀(framework)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현실과 가상공간의 융합, 인간과 지능화된 기계의 상호작용, 디지털 공간에서 부의 창출, 지능정보 융합기술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인 미래 사회의 인재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창의(Creativity), 협동(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컴퓨터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를 들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래 사회 인재들의 역량을 고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창의적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융합교육(이하 STEAM 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약자로,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교육의 목적은 ‘암기력’과 ‘종합분석력’이 아니라, ‘창의력과 상상력’의 발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창의적 발상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더 나아가 인문학적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 및 융합,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로부터 나온다.

관계적 자아를 지향하는 교육 방법론으로 불교의 연기법과 융합교육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붓다의 교설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연기법은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실재성을 부정하고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의 관계에서 진리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융합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어긋나지 않는다. 융합교육에서의 교육이란 불변의 법칙이나 각각의 학문의 고유성에 기반 한 단 하나의 해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문제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른다는 것이라는 불교의 연기법적 사고와 동일한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기법은 붓다의 교설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가르침이며 따라서 붓다의 언설은 대부분 이 연기법의 언어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연기법은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연쇄적이면서도 복합적인 관계를 밝혀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해졌다. 연기법의 이해에 대한 다양한 접근 시도는 융합교육의 기반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실을 보려는 하며 부분도 인정하는 개방적인 태도의 연기법은 학문 간의 전체적 시야를 확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학문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융합교육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무기無記라는 방법을 통해 이율배반적 문제에 대한 연기법을 설한 붓다의 가르침은 학습자 중심 교육활동을 중요시하는 융합교육이 의도하는 바와 맞닿아 있다. 여래장 사상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여래장경如來藏經』 그리고 『승만경勝鬘經』 등의 대승경전과 진여를 설하고 있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는 무아, 무상, 고의 세속제적 관점에서 상락아정의 진제적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진여’, ‘불성’, ‘여래장’, ‘자성’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 이러한 관점은 실체론적 의미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일심이문의 독자적 해석으로 ‘통섭’과 ‘화쟁’으로 풀어내어 독단과 배타성을 해결한 원효의 사상의 고찰을 통해 융합교육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불교학적인 관점에서 알아본다. 어느 한 학문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각 분야의 장점이거나 강점을 녹여내어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거나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융합교육에 대해 통섭과 화쟁의 원리로 발전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불교융합의 장을 설정해 본다면 사찰융합교육, 인문학 기반 불교융합교육, 과학기술 기반 불교융합

교육, 그리고 명상 기반 불교융합교육의 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사찰융합교육의 영역에서는 사찰건축물, 불교회화, 사찰요리, 불교전통의식, 그리고 사찰생태 등의 다양한 불교문화와 융합(STEAM)교육의 만남을 통해 불교와의 소통과 이해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동시에 사찰은 불교 교리가 외적인 형태로 묘사된 장소이기도 하고 전통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묘사될 만큼의 특별한 성격을 지닌 공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사문학 기반 불교융합교육의 영역과 연결되어 불교 철학의 시각적 구현이나 지역 문화와 역사의 자료 개발 및 제고 등의 불교융합교육의 영역간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인문학 기반 불교융합교육의 영역에서는 불교 경전이나 다양한 불교문학과 융합(STEAM)교육의 만남을 통해 토론, 토의, 스토리 이어쓰기 등등의 인문학적 학습의 단계를 거쳐 산출된 상상력이나 영감을 기술, 공학적인 방법으로 구현해 보는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융합적 과학교육모델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다. 동시에 불교경전이나 불교문학에서 심리학, 상담학, 그리고 코칭 등의 풍부한 인문과학의 원리가 스며있는데 이를 명상 기반 불교융합교육의 영역과 연결시켜 불교융합교육의 영역간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명상 기반 불교융합교육의 영역에서는 융합(STEAM)교육의 만남을 통해 명상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명상의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심리치유 융합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알아차림 명상, 자비 명상 등의 불교 명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측면이 강하므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 등을 통해 맞춤형 명상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인성교육 등의 융합 교육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불교융합교육의 영역과 연결된다. 과학기술 기반 불교융합교육의 영역과 융합(STEAM)교육의 만남을 통해 전통의 발전적 계승과 불교의 사상을 현실의 문제 해결에 융합시킬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챗봇을 이용한 불교조직의 구성 및 관리, 상담, 관련 상품물 등의 콘텐츠를 상호 대화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불교문화와 과학과의 접점을 찾는 작업을 통해 창의성을 함양하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체계 구성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막도행**



# 어린이·청소년 불교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

## - 불교종립학교를 중심으로 -

김윤경 |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여중 교범사

불교종립학교는 미래의 부처님이 자라나는 곳이다.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활발하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불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특성상 불교종립학교라고 해도 타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불자가 함께 공존한다. 이 작은 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불교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동안 축적해 온 많은 연구를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찾아낼 수 있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불교종립학교 가운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를 중심으로 불교교육의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미래의 부처님이 자라는 불교종립 초·중·고등학교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불교종립학교의 시초는 1906년 5월 8일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이며, 2024년 2월 현재 불교교육연합회에 등록된 법인과 학교는 총 10개의 재단, 25개의 학교(초등학교 1, 중학교 12, 고등학교 12)이다.

법인	학 교	소재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서울시 동대문구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서울시 광진구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홍제중학교	경상남도 밀양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선화여자고등학교	경상북도 영천시
은석초등학교	서울시 동대문구	
능인학원	능인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수성구
	능인중학교	대구광역시 수성구
원효학원	해동중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축학원	해동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정학원	금정중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광동학원	광동중학교	경기도 남양주시
	광동고등학교	

광동학원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청담학원	청담중학교	경기도 평택시
	청담고등학교	
보문학원	보문중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보문고등학교	
정광학원	정광중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광고등학교	
무일학원	참좋은 이서중학교	경상북도 청도군
	참좋은 이서고등학교	

## 2. 불교교육을 담당하는 교법사의 역할

교법사의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역할은 교사로서의 교법사이다. 교법사는 학교에 소속된 교사로서 수업, 학생지도 및 상담, 각종 연수,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교재와 교학 연구자로서의 교법사이다. 일반 교과목의 경우 방대한 수업자료와 교재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어 이를 바로 활용하면 되지만 불교의 경우 불교 교과서, 수업자료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를 찾기 힘들어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업은 전법포교의 가장 중요한 기틀이다. 따라서 양질의 수업을 위해 개인적인 수행과 끊임없는 연구는 필수 덕목이다.

셋째는 포교사로서의 교법사이다. 학교는 매년 새로운 구성원이 유입된다. 처음으로 불교를 만나는 신입생, 신입 교사, 신입 기간제교사, 학부모에게 자연스럽게 불법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교법사의 핵심 역할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법사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불교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전법해야 한다.

넷째는 시설관리자로서의 교법사이다. 학교법당, 교학실, 행복교실 등 건학이념과 관련된 공간을 관리하고 그 공간에 들어온 이들이 환희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공간에 불교문화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교계의 징검다리로서의 교법사이다. 어린이·청소년 불교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이 타종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공교육에서의 전법 포교전략과 종단의 전략은 달라야 하지만 종단과 불교관련 단체에서 조언과 참여를 요청할 때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간의 성장을 도모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하면 교법사는 ‘건학이념구현의 상징적 존재이며,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 3. 불교종립학교에서 불교교육의 목표와 교법사의 자세

불교종립학교에서 불교교육의 목표는 건학이념의 구현이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이를 중학교에서 실현하기 위해 세운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을 성숙시키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준비를 한다. 따라서 이 시기 학생들에게는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연기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만 보는 사람이 아닌 조건을 성숙시키고 연관된 모든 인연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한다.

둘째, 자신을 돌보며 모든 생명을 돌보는 자비로운 사람을 만든다.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끊임없이 평가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와 단점을 관대하게 수용하고 실패 경험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자기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후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자각하여 가족, 친구, 세상의 모든 생명과 공존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교육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법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 바로 감응(感應)과 감동(感動)이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만나는 모든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지 세심히 살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업, 수행프로그램, 법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感)되고,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응(應)하는 공식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전법 포교의 공식이다. 또한 수업, 법회, 행사 등 불교와 관련된 모든 만남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모든 순간 깊이 느끼고, 울림 있는 만남을 만들어야 부처님의 가르침과의 만남도 시작되기 때문이다.

#### 4. 불교종립학교의 불교교육 활동

불교종립학교의 불교교육 활동은 불교의 교육, 불교적 교육, 불교에 관한 교육으로 나누어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1) 불교의 교육

재학생 가운데 불자이거나 불교에 관심 있는 학생을 모집하여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불교학생회를 운영하되 전교생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교 프로그램 상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아침 예불(매일 아침 8:10), 정기법회(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봉축법요식, 불교융합수업, 자비 나눔행사 등), 사경(경전의 숲을 거닐다), 불교교리경시대회 준비반, 108배, 금강경 독송, 부중·여중 불교 학생회 연합활동 문수보현의 날, 템플스테이 등이 있다.



##### 2) 불교적 교육

불교는 공교육에 적합한 보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이는 불교의 가장 큰 강점이다. 동대부여중에서는 연기법, 자비명상 등 각종 명상기법을 기반으로 명상 수업을 설계하고 전문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수업 등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3학년 창의적체

협활동 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주 1회 사회·정서·인성교육 SEE Learning 수업을 하고 있으며, 1학년은 나 자신과 친구되기(MSC-T), 나의 감정 레시피(육도유희프로그램), 전통등 만들기를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수업에 운영하고 있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기법 기반 세계시민교육, 역사·과학·기술·미술·음악 불교융합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 3) 불교에 관한 교육

우리 역사 속 불교, 전통문화 속 불교, 문화재 속 불교 등 우리나라의 역사는 곧 한국불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문화재애호활동, 연등회, 박물관 탐방, 전통문화 한마당, 불적답사 등이 있다.



## 5. 어린이·청소년 불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

어린이·청소년 불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초·중·고 불교교육과정의 마련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교육과정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 없이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현재의 불교교육 현실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과 더불어 불교종립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다양한 자유발행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다. 문화재, 명상 등을 주제로 한 교양 교과서를 발행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명상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효과가 검증된 명상프로그램(MSC-T, SEE Learning, 명상기반 자살예방교육 등)의 보급을 위하여 불교종립학교와 명상프로그램운영 단체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과 강사비 예산을 확보하고, 명상프로그램 운영 단체에서는 양질의 강사를 양성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종립학교는 미래세대 전법포교를 위한 가장 좋은 연결고리임에 틀림없다. 어린이·청소년 불교교육을 위해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가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불교종립학교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불교교육과정, 교과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불교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정각도량**

## 하동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고승희 | WISE캠퍼스 디자인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교수

경남 하동 쌍계사(雙溪寺)는 우리나라 불교미술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찰로서, 조선 후반기 불교미술문화재의 품격과 작품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쌍계사에 소장된 여러 종류의 불교미술문화재 가운데서도 특히 불교회화는 다종다양한 주제로 35여 점이나 소장되어 있으며 대부분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꾸준히 조성되어 왔다.

이 중에서 조성시기가 가장 빠른 불화는 고법당인 팔상전 후불도로 조성된 <영산회상도>(도1, 숙종 14년, 1688년)이며 이는 17세기 후반기의 양식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불화이다.

영산회상도는 『법화경法華經』에 등장하는 수많은 존상들을 간략하게 축약하여 상징적으로 도상화한 그림이다. 석가모니불께서 성도하신 이후 깨우친 바를 많은 대중들을 불러 모아 설법하시기 위하여 왕사성王舍城의 기사굴산耑巒岫山인 영취산 정상에 마련한 법회로 석가모니불상과 8대보살상, 10대제자상, 천신상, 팔부중상, 사천왕상, 용왕·용녀상, 공양자상 등 다양한 구성 요소로 화면이 이루어졌다.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의 화기를 살펴보면 「康熙二十七年戊辰七月日」智異山雙溪寺古法堂靈山



도 1. 하동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1688년(肅宗14), 絹本彩色, 377×272cm, 보물(제925호)

會安于…(중략)…緣化秩畫圓」嘉善大夫天信比丘」一行比丘處澄比丘…(중략)’로 기록되어 있어 강희 27년(숙종 14년;1688년) 무진년 7월에 지리산에 위치한 쌍계사 고법당에 <영산회도>를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도2, 도3 참조). 다음으로는 시주자 명단을 기록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왕실에서 직접적인 시주는 보이지 않고, 상궁이나 궁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불사에 참여하는 경우만 일부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승려계층의 시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체적으로 1680년대 이후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화원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천신天信’비구이며 ‘일행一行’비구, ‘처증處澄’비구가 함께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천신’은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에 걸쳐 활발히 활동한 화승이다. 그의 생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자가 남아 있는 기록과 작품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불상 조성에 참여했으며 17세기 후반부터는 수화승으로 불화 조성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도 2. 향우측 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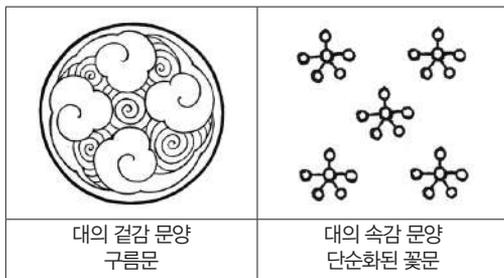


도 3. 향좌측 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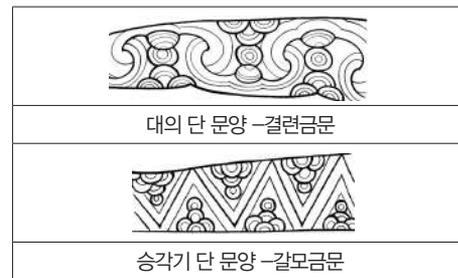
이처럼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는 17세기 중반~18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화승 ‘천신’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해야 할 소임을 분담하고 집중함으로써 불화의 예술성과 격조 높은 작품성이 돋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는 화면 크기가 세로 길이 377cm, 가로 폭 272cm의 대형 그림으로서, 큰 화면 안에서 짜임새 있는 구도와 공간감, 도상 표현과 회화기법 등 매우 뛰어난 17세기 후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수한 불화이다.

화면 구도는 본존인 석가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보살상, 사천왕상, 제자상, 공양천녀상, 벽지불상, 팔부중상, 용왕·용녀상 등의 권속들이 무리지어 본존불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균도 형식으로 이루어진 구도는 본존상이 다른 권속들과 확연히 구분되어 본존상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



도 4. 본존상 대의에 표현된 문양



도 4-1. 본존상 대의와 승각기에 표현된 문양

을 하여 본존상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권속들의 배열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권속들을 직선으로 배치하지 않고 하단에서 상단 부분으로 갈수록 큰 원을 그리며 묘사하고 있다. 마치 본존불상을 감싸 안듯이 전체적으로 리듬감 있는 구도의 곡선미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본존상, 문수·보현보살상, 맨 하단의 사천왕상을 제외하고 권속들은 상반신만 나타나게 그렸는데 상단으로 올라 갈수록 도상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전체적으로 공간감과 원근감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또한 군상들이 바라보는 시선처리와 서 있는 자세, 그리고 표정이 제각기 달라서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는 강하면서 유연한 필선과 다양한 문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도상의 형태를 도식화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묘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이다. 문양은 보상화문, 연화문, 당초문, 화문, 연주문, 기하학문, 파상문, 금문 등을 다양하게 시문하였다. 본존불상의 붉은 대의에는 이중 원형을 그리고 그 안으로는 구름 문양이 묘사되어 있는 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승각기 단에는 지그재그로 갈모금문으로 표현되어 있다.(도4, 도4-1 참조)

이 가운데 군의 단 부분의 문양이 매우 독특한데 마치 줄기가 꼬여있는 듯하고, 용이나 뱀이 몸을 서로 비틀고 있는 듯한 변형된 결련금문 유형으로 '천신'이 그린 불화에 자주 시문되고 있어 이 또한 화승의 창의적인 문양 표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sup>(도5 참조)

		
<p>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군의 단 문양 부분도(1688년)</p>	<p>여수 흥국사 영산회상도 군의 단 문양 부분도(1693년)</p>	<p>부안 내소사 영산회괘불도 승각기 단 문양 부분도(1700년)</p>

도5. '천신'作 불의 단에 표현된 변형 결련금문

이렇게 『법화경』의 내용에 따라 도상을 구현한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는 본존불상을 많은 군상들이 에워싸는 군도형식으로 예배자로 하여금 본존불상에 집중되는 효과를 주어 매우 큰 환희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괘불도 규모만큼의 대형 크기와 중앙의 본존불상을 장대하게 표현하여 압도하는 화면구성, 자연스럽게 우아한 도상의 형태, 밝고 맑은 색채와 유려한 필선,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까지, 이는 17세기 후반기에 활약상이 크게 돋보이는 화승 '천신'의 작품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는 조선시대 후반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불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각도량**

1) 조선 후반기 불화 불의 문양에 대해서는 고승희, 『한국의 불화 문양』, 지식산업사, 2017 참조



## 아버지에게 바치고픈 치유의 밥상, “절밥 무모 뱅이 나올깁데”

남혜경 / 시니어라이프 코치

어디서나 고개만 들면 가까이 또 멀리 산이 보이는 우리 국토에는 풍광이 아름다운 사찰이 곳곳에 있다. 남도의 포구가 고향인 나의 어린 시절 추억에도 절이 자주 등장한다. 서울의 대학에 올 때까지 고깃배가 드나드는 어판장 한가운데서 나고 자라 대부분 시간을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에서 보냈지만, 동무들과 먼 나들이를 가거나 단체로 학교 소풍을 갈 때면 항상 절이 가까이 있는 산자락에서 놀다 오곤 했다.

온갖 뱃사람을 상대로 어구를 파는 장사를 오래 한 아버지는 나들이하기 좋은 철이 되면 엄마와 나와 동생, 점방의 일하는 언니와 오빠까지 모든 식구를 데리고 가족 소풍을 갔었는데 늘 가는 곳이 ‘고성 절’이었다. ‘고성 절’에 가자, 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녀와서는 동무에게도 고성 절에 가서 놀다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절 이름이 고성으로 알고 있던 어린 내가 커서 다시 가보니 거기가 고성군의 하이면에 있는 운흥사였다.

법당에서 절을 한 기억은 없고 절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계곡에서 밥 지은 추억만 가득한 걸 보면 아버지는 식구를 끌고 법당으로 들어가시지는 않은 것 같다. 거친 뱃사람을 상대하면서 돈을 버느라 고단했던 아버지는 공기가 좋고 조용한 사찰 주변의 숲 여행을 즐기셨던 모양이다.

곤로와 밥솥까지 싸 들고 가서 부산스럽게 먹거리를 준비하던 그 가족 소풍에서는 밥 지어 먹는 게 큰 행사였다. 한번은 우리 곁으로 스님이 가시는 걸 보고 일하는 오빠가 함께 식사하기를 권유했다. 그 스님이 묵례만 하고 지나치는 걸 보던 옆에 있던 아버지가 “스님이 물개기 잡숫더냐? 이놈아!”라고 오빠를 나무랐다.

어시장 한가운데 있는 우리 점방에는 장날이면 스님이 탁발을 오곤 했는데 정말 물고기 식재료가 대부분이어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스님, 빈손으로 안 가시게 해라”고 하며 우리 부엌의 먹거리 대신에 오빠를 시켜 시장에서 떡이나 강정 같은 소소한 간식거리를 사다가 드리곤 했다.

유복자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일가를 이루며 힘들게 살아온 아버지는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채 늘 골골하셨다. 특히 간이 안 좋아 점방 문을 닫으면 이른 저녁부터 자리 펴고 누웠고, 조금만 과식하거나 양념이 강한 음식을 취하면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다. 가족 모두에게 자상하고 관대했던 아버지였지만 밥상에서는 성을 내며 밥상을 엮어버리는 일도 있었는데 주로 소화하기가 힘든 된 밥이나 짜고 매운 양념이 있는 반찬이 있는 때였다.

언젠가 점방을 지나던 스님과 대화를 나누더니, “내가 절에 가서 살았시모 이 위장병은 고치겠는데” 하시며 물끄러미 스님의 뒤태를 보고 계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텔레비전 쇼 프로에서 춤추는 무용수들을 보고는 그 춤사위를 구경하지는 않고 “자들은 저리 흔들어 대니 소화는 잘되겠다”고 하셨으니 잘 먹고 잘 배설하는 튼튼한 장을 갖는 게 소원이었나 보다. 지금 내 나이에든 한참 못 미치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는 결국 간경화로 돌아가셨다.

요즘 새삼 아버지가 그립다.

할머니가 되고 보니 손녀의 밥상을 챙기는 일이 맛벌이로 바쁜 딸아이에게는 큰 보시이다. 딸아이는 손녀가 정성으로 지은 건강밥상이 아니라 설탕과 조미료 범벅인 매식에 익숙해질까 늘 애를 달이니 시간도 많은 할머니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자주 밥상을 차려 딸 식구까지 먹이려 애쓰고 있다.

아무리 집밥을 챙긴다고 해도 전혀 매식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요즘 환경이고 보면, 바깥 음식에 맞든 아이가 섯 손을 내미는 정도의 경쟁력 있는 식단이 되어야 해서 이러저러한 요리법을 보면서 연구도 하고 시간도 들인다. 나 역시 수십 년 돈 버는 사회생활을 하느라 부엌살림에 소홀해 요즘이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요리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날들이 아닌가 싶다.

육식을 피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고 제철 찬거리로 양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제맛을 내려고 한다. 진간장 대신에 다시마물로 끓인 집 간장으로 간을 한다든가, 설탕 대신 발효한 청을 쓰고 달걀이나 고기는 동물 복지형 제품으로, 채소와 과일은 유기농을 골라 사는 등의 원칙을 지켜 가며 요리 방법을 궁리하다 보니 결국 그 원칙과 정신이 사찰음식을 본받게 되었다.

육류와 오신채를 쓰지 않는 계율을 지키면서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리려는 사찰 음식은 자연 친화의 재료에다, 양념과 조미를 덜 하는 절제의 요리법으로 재료가 가진 원래의 맛과 향을 낸다. 또 많이 만들어 남기고 버리는 일 없이 소식하는 발우공양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내지 않고 지구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건강식이다.

요즘 사찰음식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치유 밥상으로 여겨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채식 요리에 뛰어난 비구니 스님들이 있는 사찰이 덩달아 유명해지다 보니 그를 마땅치 않아 하는 시선도 가끔 보인다. 절은 수행하는 곳인데 공양에 그토록 에너지를 쏟느냐는 질책이다. 그렇지만 대중이 먹고 자는 생활의 기본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또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조화와 공존의 밥상을 맛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니 나무랄 것이 아니라 격려할 일이지 않을까.

나도 아버지의 체질을 닮았는지 소화불량이 잦고 간도 약하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뒤늦게나마 몸과 마음의 건강에 섭생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 한편 한심하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디냐고 스스로 대견해하기도 한다.

식구를 위한 밥상을 차리며 아버지를 생각한다. “좀 더 계셨더라면, 못난 딸이 정성으로 차린 치유의 밥상을 드릴 수 있었다면.” 하는 불효로 마음이 에인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못한 밥상의 효도를 자식과 손주에게 내리사랑으로 대신한다고 위로하면서 오늘도 정성으로 밥을 짓는다. **정막도향**



## 기울어진 나무의 운명처럼

명오 스님 |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마하남이라는 석가족의 재가 신도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카필라국은 안온하고 풍요롭고 살기가 좋아서 백성들이 많습니다. 제가 출입할 때마다 많은 대중이 좌우로 줄지어 뒤따르고, 미친 코끼리·미친 사람·미친 수레도 항상 따릅니다. 저는 이 미친것들과 삶과 죽음을 함께 하다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비구 스님들을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은 후에는 어떤 곳에 태어날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하남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대는 임종한 후에 나쁜 곳에 태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나쁜 일도 없을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큰 나무가 아래로 가지를 늘어뜨려 있으면서 한쪽으로 쏠리고 기울어진 곳이 있는 것과 같다. 만약, 그 나무의 밑동을 벤다면 나무는 어디로 넘어지겠는가?”

마하남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나무가 본래 향하고 있던 곳이나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하남에게 설하셨다.

“그대도 그와 같다. 목숨이 다한 뒤에 악한 곳에 태어나지도, 악한 일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오랫동안 불·법·승, 삼보三寶를 생각하며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바른 믿음·지계·보시·법문을 듣고 지혜에 훈습되었기 때문에, 죽어서 몸은 없어지더라도, 마음은 안락한 곳을 향하고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잡아함경』에 수록된 자공경自恣經에 있는 내용이다. 제각기 다른 존재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미래에 대해 두렵고 불안한 중생을 위한 부처님의 안심 법문이다. 여기에는 윤회와 인과응보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부처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각자의 미래가 결정되니,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를 당부하고 있다. 삼보에 귀의하여 바른 믿음으로 오계를 지키고 상대방에게 베풀며 법문을 듣고 지혜를 기르면, 이생도 내생도 행복하다는 말씀이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정법으로 산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며, 반드시 선하고 행복한 결과가 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으로 나쁜 행동을 일삼는다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악하고 불행한 업보를 받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마치 기울어진 나무가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고, 때로는 불안해한다.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우울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마련이다.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면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섭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선행과 공덕을 쌓으며 경우에 맞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개인과 사회는 유연해지고 더 나아지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더욱 매몰되어 버리기도 한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으로 나쁜 행동에 거리낌이 없으며, 가족의 의미를 망각하거나 사회의 양극화에 앞장선다. 그렇게 해서 불공정한 사회가 된다. 그들의 악한 영향력에 본인은 물론, 사회는 더 불안하고 불행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가족이나 타인, 세상에 대한 상처나 불만·오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일 순위가 자살이라고 한다. 이십십대 청년들의 고독 자살률은 중·장년층을 훌쩍 뛰어넘었다고도 한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방문을 닫는 젊은이들도 많다. 자기 자신이 닫은 방문 안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불건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만 탐닉하는 '은둔형 외톨이'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분노를 외부로 폭발적으로 드러내며 '묻지마 범죄', '외로운 늑대형 테러'를 저지르며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확산하고 있다. 이런 범행은 이미 고단하고 상처 입은 사회에 더해지는 별도의 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 이면에 있는 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격리의 문제를 '묻지마'나 '이상동기'로 완전히 가려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양극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개인주의와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소통의 단절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자신을 믿으면 좋겠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남이 있고, 이생의 업보는 반드시 다음 생에 뒤따른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모든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지만, 자살과 살인은 더더욱 피해야 하는 절대적 악행이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50만 여 종류라는 통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15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다. 부처님은 윤회의 세계에서 인간 몸 받는 것이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널빤지를 만나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성취도 인간이 최적의 조건이라니, 우리는 모두 엄청난 행운아인 셈이다. 인생이란 이토록 귀한 것이다.

세상과 타인의 불행은 나와 무관하지 않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싼 주변과 세상도 편해야 가능한 일이다. 너와 나, 이 세상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정신이 불안정하고 아픈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나 사회에서 절망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의 기쁨과 사회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때이다. 아이들이 각자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해 나아간다면 삶이 행복해진다. 기울어진 나무의 운명처럼, 우리의 미래도 편안하고 안락한 쪽으로 향하게 된다. **정막도향**

## 나눔의 실천과 더불어 사는 삶

동원 스님 | WISE캠퍼스 사회복지학과 강사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는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세계관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 정신적인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삶. 그 어떤 모습이든 지금보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쌓아가는 것만큼이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삶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바로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눔과 베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나눔과 베품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함께 공존함을 가치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나를 이해하고 보듬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일 또한 내면에 간직된 자비를 끌어낸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자비를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에게 함께 걸어 줄 수 있는 마음과 그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면 족하고, 병마와의 싸움에 지친 이들에게 손수 가꾼 상추와 텃밭의 싱싱한 유기농야채를 가꿔줄 수 있는 진심어린 마음이면 족하며, 몸의 고통보다 마음이 쓸쓸한 이들에게 그저 말벗이 되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잡초를 뽑고 곳곳을 대청소하며, 기금의 마련을 돕는 연등을 바르고, 후원자를 위한 조그만 책자를 포장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듯한 이런 소소한 일들이 함께 숨 쉬며 공존하는 어떤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일들입니다. 물질이 부족해 그들을 살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행함에 있어 얼마만큼의 진실성을 지니고 임하느냐의 차이가 결말을 다르게 만들 뿐이지, 누구보다 못났거나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상대적인 가치 안에만 자신을 가둬두면 항상 그것보다 못한 자신을 발견해

방황의 긴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표층적인 만족은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겠지만 진정한 만족은 근원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맛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되돌려 줄 수 있는 커다란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듯이 배부른 투정에 지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이기에 세상은 존재하며 작지만 끊을 수 없는 미세한 연결고리로 세상의 많은 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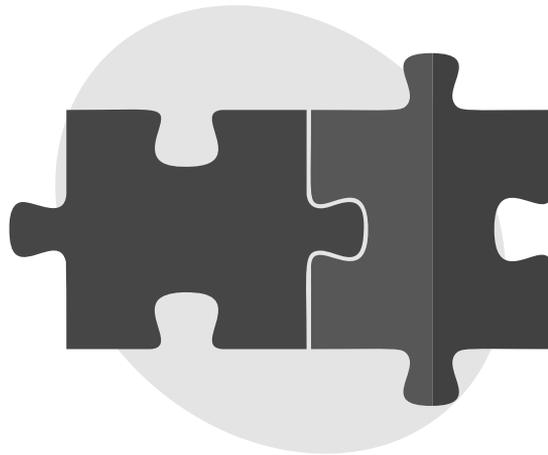
옆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런 작은 파장들이 모여 어떤 공간속에 많은 이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이기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중 하나는 나로 인해 어떤 이가 잠시나마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다면... 이 얼마 값진 일일까요?

나눔을 실천하면 상대방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혁명이어야 하고 제도를 바꿔야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고집을 버리는 일, 남과 둘이 아님을 자각하는 일, 나눔을 통해 내면의 풍족함을 이루는 일, 그리고 위로만 오르려는 마음을 낮춰, 넓고 평평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일 등, 작은 것에서부터 스스로 하나하나 자신을 바꾸가는 과정으로써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만들어 감에 따스한 마음과 가슴을 나누는 것에 더 큰 가치판단의 기준을 둔다면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정각도량**



## 인토忍土에서 금강 도반들과 더불어

배광식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삼독三毒과 번뇌를 참고 감수해야 하는 세계인 인토忍土에 온 지 70여 성상星霜이 흘렀다. 일체가 고풍인 사바세계에 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모두는 참는 공부를 하려고 이곳에 왔다. 그런데 대부분은 온 뜻을 잊고, 불평불만 속에 허둥대다가 속절없이 가는 날을 맞게 된다. 이는 마치 공부하려고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본 뜻을 잊고, 공부하기 싫다고 불평불만 속에 어영부영하다가 공부는 해보지도 못하고 졸업을 맞게 되는 학생과 같다.

그렇다면 고행苦海인 참는 땅에서 어떻게 본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상적 대전환기였던 ‘축軸의 시대(the Axial Age, BCE 8세기 ~ BCE 3세기)’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유교, 도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배화교)와 같은 많은 종교가 생기고, 많은 철학 사상가들이 출현해 삶의 뜻과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들 중 세상살이가 모두 고[一切皆苦]임을 직시하고, 그 해소법을 제시했으며, 과학혁명(Scientific Revolution) 이후에도 확고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빛을 발하는 것은 불교이다. 불교의 진리를 과학이 뒤따라오면서 증명해주고 있다.

과학혁명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에서, 지구중심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태양중심설을 주장해 근대 자연과학의 획기적 전환을 이룸으로써 시작됐고, 1687년 뉴턴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에서,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 천체운동, 유체역학, 광학 등 다양한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해 현대 과학의 기초를 다지며, 정점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16~7세기에 일어난 과학혁명(과학적 사고와 방법론의 급격한 변화)은 이성과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 체계로 발전했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과학혁명을 출발시킨 것은 ‘인류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의 답을 모른다는 점을 발견한 것’으로, 과학혁명이 지식혁명이 아니라, 모르는 데서 출발하는 무지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과학혁명 이후, 지식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진리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론이 지식이라고 해 실용성을 강조했다. 과학혁명 전에는 과학과 기술이 전혀 별개 분야였었고, 17세기 초반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과학과 기술을 연결시키기 시작한 것은 혁명적인 아이디어였고, 점점 양자兩者 간의 연결이 강화되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야 기술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과학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정착되었다. 현대 과학은 옛 전통의 연구보다는 새로운 관찰과 실험, 그리고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대학 1년생들은 자신의 임무는 앞선 학자가 알았던 것을 뛰어넘는 데 있다고 배운다. 과거 전통에서 이야기

로 이론을 수립했다면, 현대 과학에서는 관찰들을 종합해 이론을 만들 때 이야기 대신에 수학을 사용한다.

사르나트의 5비구에 대한 붓다의 최초 설법 이래, 2600여 년을 지속해 온 불교는 세계적으로 5억 4천만 명 이상의 불교 인구를 갖고 있으며, 그밖에 최근 붐(boom)을 이룬 명상들의 다수가 불교의 명상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널리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콘즈(Edward Conze)는 불교를 철학 용어를 빌려 표현한다면, ‘심리학적 경향이 있는 변증법적 실용주의’라고 하였다.

불교 경론은 팔만대장경에 이를만큼 많지만, 초전법륜경(初轉法輪經, 무아상경(無我相經), 연소경(燃燒經)의 초기핵심 경전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전법륜경에서는 ‘쾌락의 탐닉에 전념(專念)하는 것’과 ‘고행(苦行, 자학(自虐)에 전념하는 것’의 양 극단을 ‘중도(中道) 곧 팔정도(八正道)’를 통해 벗어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사제법(四諦法)을 설한다. 사제법은 고·집·멸·도(苦·集·滅·道)의 네 가지 진리로서, 다시 말하면 고(苦; 일체개고(一切皆苦), 고집(苦集; 고의 원인), 고멸(苦滅; 고의 소멸), 고멸도(苦滅道; 고를 소멸하는 길)의 네 가지 진리이다.

“고성제(苦聖諦; 고의 진리, Suffering, Pāli Dukkha)가 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도 고(苦)이고, 슬픔, 한탄, 고통, 비탄, 그리고 절망(우비고뇌(憂悲苦惱))이 모두 고이다. 싫어하는 것을 만남,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고이며, 요컨대 우리가 집착하고 의지하는 오온(五蘊; 몸, 느낌, 개념작용, 의지작용, 인식작용)이 모두 고이다. …고의 원인은 갈애(渴愛)이니, 쾌락과 욕망을 수반한 다시 태어남(윤회)을 초래하며, 이것저것을 즐기는 것이다. (갈애는) 곧 욕애(欲愛; 관능적인 갈애, sensual desire, Pāli kama tanha), 유애(有愛; 무엇이 되고 싶은 욕망, desire to become, Pāli bhava tanha), 무유애(無有愛; 무엇을 회피하고 싶은 욕망, desire to get rid of, Pāli vibhava-tanha)의 3애(三愛)이다. …고의 소멸은 그러한 갈애의 남김 없는 쇠퇴와 중단, 포기, 떠남, 놓아버림과 제거이다.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곧 8정도로 이른바 정견(바른 견해), 정사유(바른 사유), 정어(바른 말), 정업(바른 행동), 정명(바른 생활), 정정진(바른 정진), 정념(바른 마음챙김), 정정(바른 명상)이 8정도이다.”

사제(四諦)는 3전(三轉)12행상(十二行相)으로 굴러야 하니, 고집멸도 각각을 서술(시전(示轉, 견도(見道), 수행(권전(勸轉, 수도(修道), 증명(증전(證轉, 무학도(無學道) 하여 세 번 굴리면 3전(三轉)12행상이 된다. 3전(시·권·증) 할 때 각각 안목(안眼, Pāli cakkhu)과 지혜(지智, Pāli ñāṇa), 통찰지(洞察智, 혜慧, Pāli pañña)가 생기고, 명지(明智, 명明, Pāli vijjā)와 광명(光明, 光光, Pāli āloka)이 생긴다.

“많은 인원의 법회도 필요한 일이지만,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라고 고구정(苦口丁寧) 당부하셨던 청화큰스님의 말씀에 따라, 2002년 “금강(金剛)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 <https://cafe.daum.net/vajra> , <https://cafe.naver.com/huineng>)를 개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고멸(苦滅)을 위해 함께 공부해 온 금강 도반(金剛道伴)들과, 충남 태안의 묘금륜원(渺金輪園)에서 200회째의 월례 염불선 철야정진(2024.1.27~8)을 가졌다. **장각도량**

## 모정불심母情佛心: 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불심

장희수 | (주)대교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근무

며칠 전 엄마와 시장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고구마 몇 개랑 파 한 단을 사고 계산하려는 데 가게 주인 할머니가 내 눈을 한참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 살아계실 때 효도 많이 하래이.”

“네! 그럴게요.”

갑작스러운 말씀에 힘차게 대답하고 뒤돌아섰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깊게 밝혀 그날 내내 생각이 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효도를 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열감기로 고생하는 나를 밤새 간호했던 엄마, 너처럼 착하고 예쁜 딸이 어떻게 나한테 왔니 하고 묻던 엄마, 마음이 힘들다고 영영 울자 네가 마음 아프면 엄마는 세상이 무너진다고 가슴 아파하던 엄마, 조건 하나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준 엄마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가 준 사랑으로 내 인생은 따뜻하지 않은 순간들이 없었다.

엄마에게도 할머니는 그런 존재였을까.

어느 날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내 인생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렇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존재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 말이다.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별심이 없어서 일 것이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분별없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불성의 마음, 불심佛心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

엄마는 종종 할머니께 불효만 한 것 같다며 지난 시간을 후회하곤 한다. 하지만 이내 후회는 뒤로하고 할머니에게 받은 유산에 걸맞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엄마가 받은 유산은 할머니의 불심이다. 할머니는 배움이 깊지 않으셨다. 그래서 불경 공부도 못하셨다. 하지만 절의 신도회장을 맡아 불사를 하는데 열중하고 절에 오는 사람들을 이끄셨다.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지 모르셨지만 누구보다 관세음보살처럼 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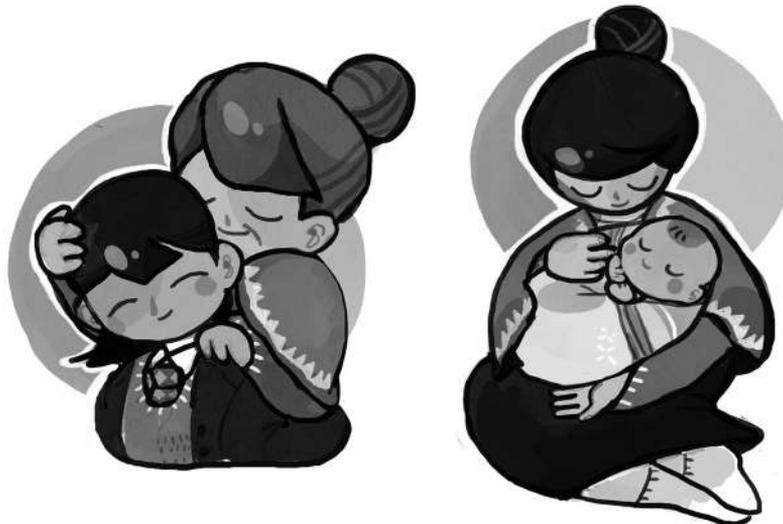
가난한 농부에게 시집과 자식 5명을 두고 매 순간순간 열심히 사셨던 할머니를 엄마는 진심으로 존경했다. 할머니는 ‘단결斷決에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결단을 내렸으면 그 자리서 바로 행동하라는 의미였다. 몸소 그 말을 지키셨다. 결심이 서면 바로 행동에 옮기셨다. 적극적으로 불사에 앞장섰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를 권했고 당신도 그리하셨다. 절에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도 다니셨다.

엄마는 돌이켜보면 현재를 가장 충실히 살았던 할머니의 불교가 진짜 불교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론만 알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많은 것을 몰라도 단 하나만 분명히 알고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할머니의 그 불교는 대학 나온 자신의 불교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말이다. 엄마는 그런 할머니의 불심을 늘 기억하고 닮아가려 애쓰고 있다.

요새 작가인 엄마는 현대불교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 여러 스님들의 어머니의 마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정불심(母情佛心), 어머니들의 불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자식은 은사 스님 앞에서 삼배의 절을 올리며 큰스님 만들어 달라고 했던 어머니,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 하고 자식을 일깨웠던 어머니, 자식이 출가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다고 고백한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책에는 어머니의 이름만으로 위대한 세상의 어머니들의 불심이 담겨 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으면 온전히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 모정불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불성 인지는 이제 어렵פות이 알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시장 할머니가 건넨 그 말을 돌아보며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아마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단결에 하라'가 아닌가 싶다. 현재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일 것이다. **정각도량**





## 안심하게 행복해지는 실천행 『金剛經』 ‘無住相布施’

동진 스님 | 혜광원(종비생 수행관) 학감

얼마 전 천도재를 앞두고 발원과 함께 『金剛經』 원문을 직접 사경 하는 기회가 있었다. 『金剛經』은 사경하고 독송하는 공덕이 심오한 경전으로 알려져 불자들에게 가장 친근하여 49재나 천도재에서 자주 독송 되고 있다. 초기불교 경전에서는 법구경과 수타니파타가 가장 많이 읽혔으며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금강경이 가장 많이 읽힌 경전으로 꼽을 수 있다. 집착과 시시때때로 생겨나는 번뇌를 끊는 강력한 지혜가 담겨있는 『金剛經』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며 머무는 바 없이 어떻게 안심하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 ‘無住相布施’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본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金剛經』은 누구나 한 번쯤 제목이라도 들어 보았으며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사상이 담겨있어서 불제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경전이다.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일체 번뇌를 끊어 없애는 진리의 말씀’의 뜻으로 누구나 이 경을 지성으로 수지 독송하면 업장이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반야지혜般若智慧를 얻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해 독송케 하면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되고 마음을 다해 독송하다 보면 언젠가는 밝은 지혜로 다가올 것이다.

집착과 고통의 번뇌는 시시때때로 생겨나서 마음을 움아매고 있다.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또 갑자기 슬펐다가 기뻐다가 감정은 만지려 해도 만질 수가 없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이 아무런 실체가 없다. 그런 번뇌를 끊는 강력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상相을 다 내려 놓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금강과 같은 반야지혜를 얻으면 중생의 온갖 번뇌 망상을 자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정해진 상相이 없이 계속 변하고 달라진다. 상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선입견, 내 생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내가 보고 느끼고 내세우는 것들이다. 우리 생각이 고정관념을 벗어나 어느 한 극단으로 정답을 고정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중도의 눈으로 실상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떤 법이나 경전도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너는 용도를 다하면 버리고 가야 한다.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는 자주 나오는 언구이다. 제4분 妙行無住分<sup>1)</sup>은 금강경의 실천적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다. 묘행무주는 모든 수행자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실천행을 알려주며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가도 나와 있다. 머무는 바 없는 미묘한 행으로 무주이며 실천하는 행이 바로 부처의 행이다. 머무는 바 없는 것은 집착이 없고 바라는 바가 없으며 아무런 분별도 없고 과거나 미래에 걸리지 않는 현재의 깨어있는 것이다. 내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기억이나 예측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맡기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행이다. 불교에서 ‘마음을 비워라, 내려 놓아라’는 아무 행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집착함이 없이 머무는 바 없는 무주묘행인 것이다.

무주상보시無主相布施에서 무주無主는 상상에 머무는 바가 없이 머물지 않고 집착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이다. 무상無相은 비추어지는 상상이 없는 의미로 상상에 머무르지 않는 무주상보시無主相布施를 하라는 말이다. 남에게 내 것을 베풀어 주되 주었다는 상에 머무르지 않고 내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나는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떠오른 순간에 나에게만 자만심과 자긍심이 생겨나서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시(布施, dana)는 육바라밀로 보살의 수행덕목 중 가장 중요시하는 실천 수행법이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보시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에게 조건 없이 재물로 도움을 주는 재시財施, 이치를 몰라 헤매는 이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여 베풀으로써 깨우쳐 주는 법시法施, 공포심으로 괴로워하는 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無畏施는 공포심을 없애 편안케 하는 보시를 말한다. 대부분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공통적인 부분이다. 대승보살의 가장 필요한 실천행은 육바라밀六波羅蜜로 귀결되어 베풀지만, 대상에 집착하지



1) 원문 第四 妙行無住分 復次 須菩提 菩薩 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 所謂 不住色 布施 不主聲香味觸法 布施 須菩提 菩薩 應如是布施 不住於相 何以故 若菩薩 不住相布施 其福德 不可思量 須菩提 於意云何 東方虛空 可思量不 也世尊 須菩提 南西北方 四維 上下 虛空 可思量不 也 世尊 須菩提 菩薩 無住相 布施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須菩提 菩薩 但應如所教住



말고 베풀며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은 생각이나 계산 등에 의해 베풀어서는 안 된다. 베풀이 중요한 실천 수행법이긴 하지만 어떤 바람이나 계산 등에 의해 베푸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보살행이 아니므로 반드시 무주상보시의 실천으로 걸림이 없고 한계가 없는 허공과 같은 깨달음에 이르도록 한다.

대승의 육바라밀 수행법에서 보시가 많이 강조되어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도 금강경 계승 하나의 법보시를 따라올 수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마음을 잘 배우고 혼습 하면 부처님 안심을 얻을 수 있으니 이는 불안함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상의 안심으로 가는 법문이 된다. 안심하려면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수행을 실천해야 하며 이런 수행법은 어떤 바탕 위에서 해야 하는지를 무주, 보시, 무상으로 무주상보시를 알려준다.

중국 선종의 육조 혜능은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應無所住 而生其心)”<sup>2)</sup>는 대목을 저작 거리에서 듣고 발심 출가하였다. 세상만사는 고정된 상이 없음을 깨닫는 무상無相은 『金剛經』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요지이며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양으로 부처를 보지 말고 진리로서 존경하며 모든 모습은 모양이 없으며 이렇게 본다면 곧 진리인 여래를 보게 된다고 하였으니 하나하나의 의심을 끊고 단단한 금강심을 마음에 무장해서 진정한 무주상보시를 실천한다면 환희심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은 따뜻함을 보시하고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는 적당히 따뜻함과 편안한 휴식으로 모두에게 보시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는 내가 다른 이에게 베푸는 좋은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과 주변의 모든 존재가 무주상보시를 보여주고 그 모든 존재가 본래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존재와 자연의 이치가 그 어떤 의도 없이 자신의 인연에 맞게 진실한 보시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한다거나 어떤 좋은 일을 했다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든 존재가 그냥 보시하고 있다. 이렇듯이 모든 존재들의 진정한 무주상보시를 언제든 어떻게든 행하듯이 우리도 그냥 받고 있다. 진정한 무주상보시는 존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그 모든 현상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안심한 상태인지 물어만 봐도 응무소주의 마음 상태가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편안한 상태인 무주상이 된다. 그 마음이 곧 안심이며 비워지는 그 상태가 집착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 있어 집중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복을 구하려는 생각에 참 진리의 보물을 모르고 놓칠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보시를 실천하는 길이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바뀐다. 최상의 지혜인 금강과 같은 분별과 집착을 벗어난 반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변화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상相을 상으로 보지 말고 법法을 법으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법을 바로 볼 수 있다.” 정각도량

2) 원문 莊嚴淨土分 第十 是故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生清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而生其心

